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2025. 4. 14. - 11. 15.



우수상

소숨

▶ 전수현, 문서현, 신지우



리포트

의류수거함과 여러 업체(단체)들은 정말
헌옷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있을까?

영상

소름! 당신이 버린 옷의 진짜 종착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경 이야기]



각오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OO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2학번 문서현, 신지우, 전수현
으로 구성된 '소숨' 팀입니다. '소숨'은 '소나기가 한 번 내릴 동안'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명에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선 준비 과정
에서도 소나기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의견
을 조율하며 잠시 혼란이 오기도 했고,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획했던 인터뷰가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함께 넘어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처음 소나기가 내리는 순간이 힘들게도 느껴
졌던 소숨은 어쩌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단비같은 존재였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빗줄기가 필요하듯, 저희에게도 '소숨'이 팀워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선을 위해 약 5개월간 준비한 체커톤 대회
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짧지만 알차고 강렬했던 시간 속에 저희가
고민하고 시도했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 "의류수거함과 여러 업체(단체)들은 정말 헌옷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있을까?" *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단체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학과에 소속감을 주는 과 잠바, 동아리에 소속감을 주는 동아리 잠바, 학생회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더해주는 학생회 돗바, 이 외에도 교내 자치 단체 소속임을 나타내는 맞춤형 제작 티셔츠 등 한 사람당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대여섯 개의 단체복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단체복들은 대학 생활의 추억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소속감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도 있지만, 짧게는 몇 개월만 입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속팀의 팩트체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체복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는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된 뒤 폐기 되는 '패스트 패션'이 당연시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버려진 헌 옷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막연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자료들과 전문가,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 옷의 진짜 행방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어떤 형태의 자료가 필요한가?

신문기사, 논문, 업체 및 지자체 인터뷰, 해당 분야 교수님의 의견

2. 무슨 내용을 찾고자 하는가?

의류수거함과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설 방문 수거 업체에 들어가는 헌 옷들이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3. 어떤 방법으로 팩트체크 할 계획인가?

의류 폐기물 현황 분석

기사

김아진, "버려지는 옷, 노숙자도 안 입어... kg당 300원에 해외로", 조선일보, 2023.10.21.,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10/21/VDANSHGWWJC2BGCM2QSCHUAMUQ/>

박준용, "무심코 버린 모직코트 한 벌, 종이컵 912개 버린 것과 같다", 한겨레21, 2024.12.26.,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6608.html>

손고운 외 1명, "저개발국 헌옷 처리 엉망...국내 소각이 더 친환경적", 한겨레, 2025.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6658.html>

윤슬기, "헌 옷 보내고 3만원 수익...쓸쓸한 용돈별이의 세계[조선물가실록]", 아시아경제, 2024.9.22., <https://cm.asiae.co.kr/article/2024091916303980177>

웹페이지

그리니엄, 2025.9.21., <https://pfree.me/8480/>

EARTH.ORG, 2025.9.21., <https://earth.org/statistics-about-fast-fashion-waste/?utm>

EARTH.ORG, 2025.9.21., <https://earth.org/fast-fashion-and-emissions-whats-the-link/?utm>

ELLEN MACARTHUR FOUNDATION, 2025.9.21.,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a-new-textiles-economy>

World Economic Forum, 2025.9.21., <https://www.weforum.org/stories/2023/08/textile-recycling-create-jobs-reduce-pollution/>

기타

공감누리집, 2025.9.21.,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content=NC002&mid=a10205000000&news_id=66da3846-ba78-47af-b50a-3ce80f89fcd9§ion_id=NCCD_PUBLISH

1-1.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설문조사

20대 70명을 대상으로 '헌 옷 처리 방법'에 대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진행

1-2. 소셜 데이터 분석(텍스트 마이닝)

소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썸트렌드'를 사용해 연관어 분석 진행

2. 헌 옷 수혜 단체의 옷들은 의류수거함과 여러 업체에서 보낸 옷일까?

기사

김아진, "버려지는 옷, 노숙자도 안 입어... kg당 300원에 해외로", 조선일보, 2023.10.21.,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10/21/VDANSHGWWJC2BGCM2QSCHUAMUQ/>

웹페이지

지식iN, 2025.9.21.,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2&dirId=1204&docId=21160135&enc=utf8&kinsrch_src=pc_nx_rra&qb=7J2Y66WY7IiY6rGw7ZWoiOyYtyDslrTrlJ'TroZwg6rCA64KY7JqU

3-1.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옷들은 재사용(기부) 및 재활용이 될까?

웹페이지

굿윌스토어, 2025.9.21., https://goodwillstore.org/donation/donate_items.php?NaPm=ct%3Dmd1novyw%7Cci%3D0zG0002RDRbCKSDHkL0X%7Ctr%3Dbrnd%7Chk%3D6d5c0bba712af45ed06f2d077ac46210431cd021%7Cnacn%3DfKiSCQB3TJkBB

아름다운가게, 2025.9.21., <https://www.beautifulstore.org/reuse-store>

아름다운가게, 2025.9.21., <https://www.beautifulstore.org/upcycling>

옷캔, 2025.9.21., <https://otcan.org/13774-2>

희망친구 기아대책, 2025.9.21., <https://www.kfhi.or.kr/support/178>

3-2. 의류수거함의 옷들은 재사용 및 재활용 되고 있을까?

기사

김경희, "헌옷 수거함 '복마전'... 온정의 손길 '배신감'", 경기일보, 2018.5.22., <https://www.kyeonggi.com/1478170>

박준용, "수거함 속 '헌 옷' 추적 어떻게 했나", 한겨레, 2025.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5901.html>

박준용 외 1명, "'축구장 700개' 타이 쓰레기 산에 나뒹구는 한국 옷과 신발들", 한겨레, 2025.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6472.html>

웹페이지

K-stat 무역통계, 국내 통계-품목 수출입(코드 6309), 2025.9.21., <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OECD, 2025.9.21.,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used-clothing/reporter/kor?utm_source

기타

KBS 다큐,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우리 옷들이 바다 건너 거대한 무덤이 되다

|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 KBS 20210701 방송, 2022.6.25., <https://youtu.be/gw5PdQOiodU?feature=shared>, (10:32).

3-3. 사설 헌 옷 수거 업체의 옷들은 재사용 및 재활용 되고 있을까?

기사

김수연, “‘헌옷 버리지 말고, 문 앞에 두세요’... 방문수거·재판매로 의류폐기물 줄인다”, 더 나은미래, 2023.5.9., <https://futurechosun.com/archives/75605>

김지원, “[인터뷰] 양수빈 리클 대표 “앱으로 신청하는 헌 옷 수거 서비스...편리함·용돈에 환경 보호까지””, 시사저널e, 2023.5.18.,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904>

오한준, “리클, 웹스와 MOU 체결... 헌 옷 기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생산 추진”, 데일리경제, 2025.4.16.,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80>

teddy, “웹스, 파타고니아에 ‘섬유폐기물 업사이클링 벽돌’ 납품”, 스타트업데일리, 2023.7.20., <https://www.startu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3657>

4. 문제점과 원인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기사

기소연, “강원도 폐의류 발생량, 도내 18개 행정구역 중 7곳만 집계”, 오마이뉴스, 2025.6.17., <https://omn.kr/2e6br>

김기봉, “[과학의 달인] 폐의류 더미에서 고순도 폴리에스터 추출”, YTN사이언스, 2023.2.2.,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key=202302021710525506&mc=0082>

김성준, “의류 선순환은 곧 ‘지속가능순환경제’”, 틴뉴스, 2024.4.18., <https://www.tinnews.co.kr/26569>

차지은, “플라스틱, 제대로 썩히거나...무한히 재활용하거나 [기스]”, 한국경제, 2023.11.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60803i>

Alden Wicker, “How Can Companies Recycle Clothes Back Into Clothes?”, Wired, 2023.5.18., <https://www.wired.com/story/polyester-recycling/>

논문

길나연, “가정용 의류 폐기물 효율적 재이용을 위한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pp. 2-3

오정미, “패션산업의 자원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의류 폐섬유 분류체계 분석”,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73권 제4호 2023, pp. 7-13

웹페이지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Study highlights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increasing textile-to-textile recycling rates in the EU”, EU Environment newsletter, 2025.9.21.,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study-highlights-positive-environmental-impacts-increasing-textile-textile-recycling-rates-eu-2025-06-18_en?utm_sourc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2025.9.21., <https://www.eea.europa.eu/publications/plastic-in-textiles-towards-a>

KOSIS,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_생활폐기물, 2025.9.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29_2020005&conn_path=I2

K-stat 무역통계, 국내 통계-품목 수출입(코드 6309), 2025.9.21., <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기타

서울환경연합,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도와줘요 쓰레기박사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2020.2.11., <https://youtu.be/-vFoVZwUBJE?feature=shared>, (00:10~01:00).

결론

기사

김효혜, “안 입는 바람막이 가방으로 바뀌드려요” 휠라코리아, 폐의류 재활용 ‘리턴 투 케어’ 캠페인, 매일경제, 2024.12.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8908?sid=103>

신유경, “‘빨리 만들어 싸게 다’ 패스트패션 유행에...폐의류 재활용 고심하는 환경부”, 매일경제, 2025.6.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08636?sid=101>

오경천, “폐의류의 변신 어디까지, 업사이클링의 진화”, 어패럴뉴스, 2025.6.9., https://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17970

이한솔, “소비자는 원하지만 사지 않는다? 윤리적 패션,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 충북일보, 2025.3.24., <https://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857547>

5. 팩트체크를 위해 인터뷰 해야 할 대상

- 강남구청 의류수거함 담당자
- 광진구청 의류수거함 담당자
- 굿월스토어
- 남양주시청 의류수거함 담당자
-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오정미 교수
- 사설 헌 옷 수거 업체 5곳
- 서산시청 담당자
- 서울시 송파구 의류수거함 B업체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 옷캔
- 충청남도 서산시 의류수거함 A업체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팩트체크 해보기

패션 산업은 우리의 생각보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매년 약 9,200만 톤의 ‘Textile Waste’가 발생한다. 또한, 엘렌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보고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EARTH.ORG는 이 수치가 국제 항공과 해상 운송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헌 옷을 별다른 설비 없이 야외에서 태우는 일이 많아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오히려 국내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친환경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모직코트 한 벌의 탄소 배출량은 종이컵 900개 이상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옷의 70% 이상은 합성 섬유이며, 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백 년 동안 땅속에서 썩지도 않는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중고의류 수출 세계 5위이며, 대부분의 수출 대상은 개발도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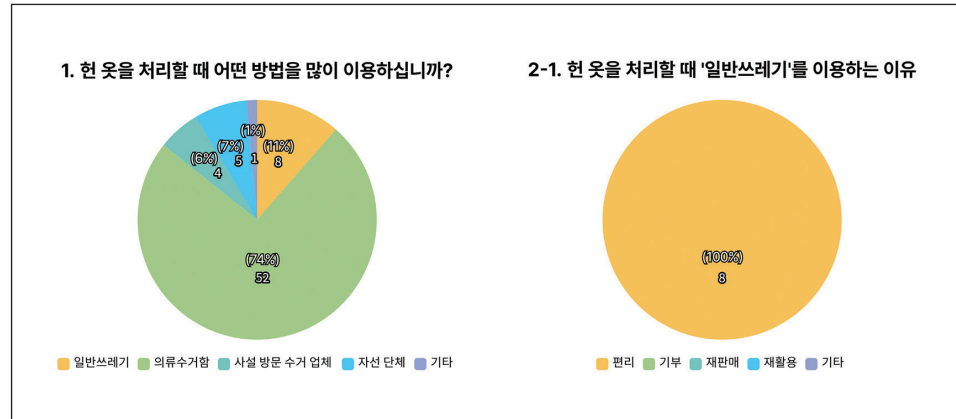
이에 더해 최근 패스트패션의 확산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K-공감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 데 반해, 지구에서 한 해 생산되는 옷의 양은 약 1,000억 벌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73%가 매립되거나 소각되므로 1초마다 약 2,625kg, 즉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지는 셈이다. 그중엔 팔리지 못한 새 옷도 무척 많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버려진 옷 대부분이 개도국으로 넘겨진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등 헌 옷 수입국들은 산처럼 쌓인 ‘옷 무덤’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 헌 옷 처리 방법에 대한 20대 설문조사



먼저, 우리 팀은 사람들이 헌 옷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70명을 대상으로 '헌 옷 처리 방법'에 관한 네이버 폼 설문을 배포하고,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1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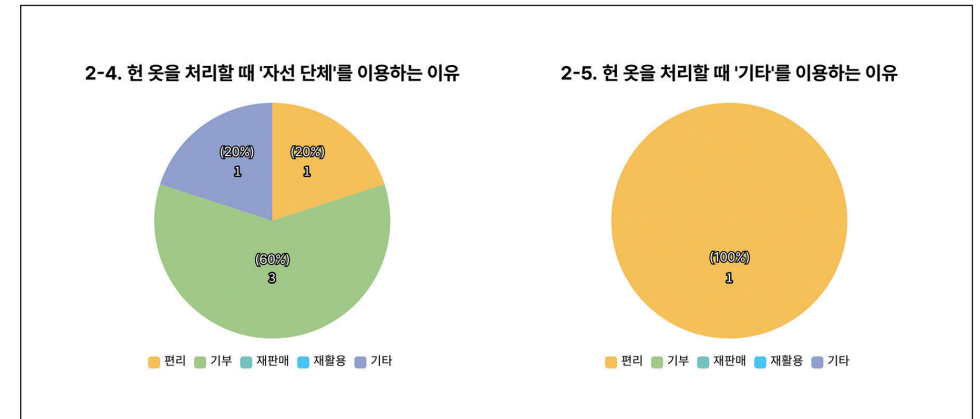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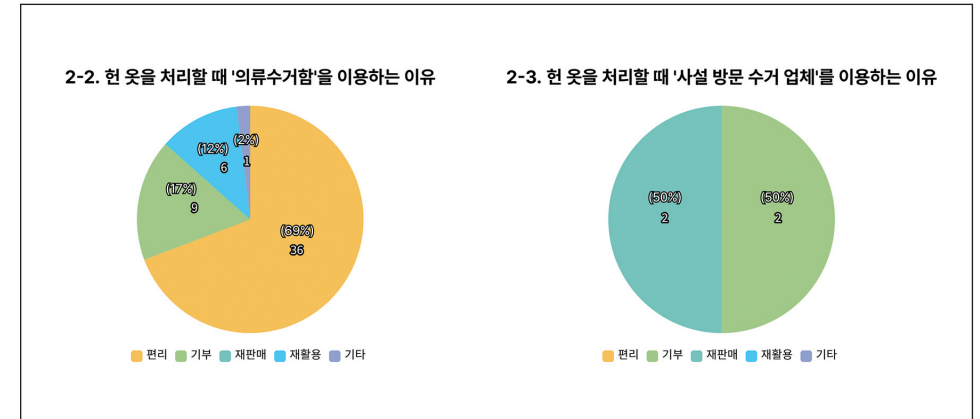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SPA 브랜드를 통해 옷을 구매한 소비층 중, 20대의 연령권 구매 횟수가 9.5회로 가장 높았다. 이에 우리 팀은 패스트패션의 중심에 있는 SPA 브랜드 의류 구매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20대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로, 헌 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자, '의류 수거함을 이용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2명(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쓰레기(8명, 11%), 자선 단체(5명, 7%), 사설 방문 수거 업체(4명, 6%), 기타-고물상 판매(1명, 1%) 순이었다.

두 번째로,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일반쓰레기를 이용한다고 답한 8명은 모두 '편리해서'라고 답했다. 의류 수거함을 이용한 52명 중 36명(69%)도 편리함을 이유로 꼽았으나, 다른 15명은 '취약계층 기부'와 '원료 재활용'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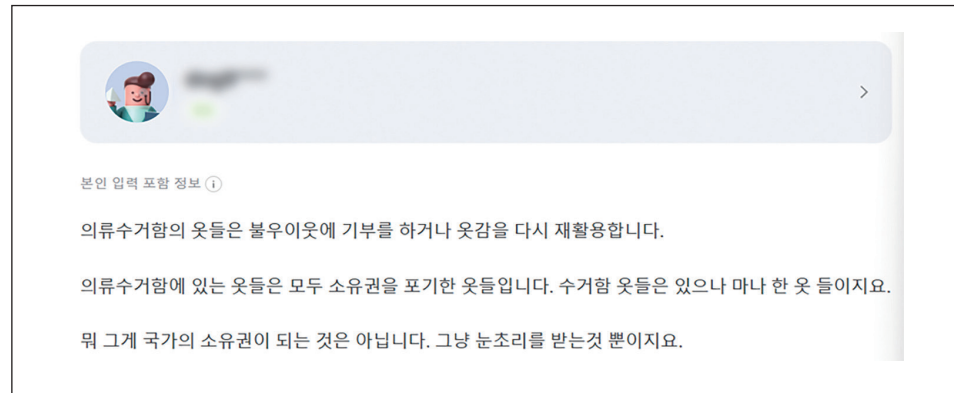
응답자는 '지역 내 모든 의류 수거함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활용 수치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설 방문 수거 업체를 이용한다고 답한 4명 중 2명은 '취약계층 기부'를, 나머지 2명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자선 단체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5명 중 3명은 '취약계층 기부'를, 1명은 '편리해서'를 선택했다. 또 다른 1명은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고, 기부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타-고물상 판매를 이용한다고 했던 1명의 응답자는 '편리해서'를 이유로 선택했다.

세 번째로, 각 처리 방법에 따른 폐의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1(10%)~10(100%) 척도로 물었다. 그 결과, 폐의류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응답된 방법은 자선 단체(80%)였다. 그다음으로는 사설 방문 수거 업체(70%)가

업체나 기부 단체를 통해 옷을 보내면 기부된다”라는 식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소송팀은 ‘의류 수거함·시설 방문 수거 업체·자선단체의 이용이 기부나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업체와 단체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기 전, 먼저 노숙인 지원센터와 같은 실제 ‘헌 옷 수혜 단체’에 도착하는 의류의 출처를 조사하여, 세 개의 ‘헌 옷 처리 수단’들이 실제 기부(재사용)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봉사단체에서도 헌 옷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기사의 서울시 단체 관계자는 ‘양말도 껌매 신지 않는 시대에, 노숙자들도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 남의 옷은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헌 옷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차로 관련 기관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의류 기부를 받아 노숙인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개인 기부자가 센터에 기증하는 의류는 여러 종류를 합하여 1회당 약 10~15벌 정도이며, 희망 옷 나눔 사업을 통해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가 주 1회 약 150벌의 옷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헌 옷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시설 관계자는 ‘대부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고 있음에도 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선일보 기사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더 이상 헌 옷이 필요하지 않은 소외계층 지원 단체도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헌 옷 기부가 부족하여 여러 단체와 기업,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기관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기관

에서는 헌 옷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아직 존재하지만, 의류 수거함, 시설 방문 수거 업체,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헌 옷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2] 팩트체크 결과

우리가 의류수거함과 시설 헌 옷 수거 업체, 기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보낸 옷들이 ‘헌 옷 수혜 단체’에 재사용(기부)되는지는 알 수 없다.

[3-1]: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옷들은 재사용(기부) 및 재활용이 될까?

앞선 조선일보 기사와 서울의 노숙인 복지 센터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의류 수거함과 시설 방문 수거 업체,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보낸 옷들이 재사용 및 재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송팀은 헌 옷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을 위해 쓴다고 밝힌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옷들이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단체 4곳을 조사 후 인터뷰했다. 그중 굿윌스토어와 옷캔이 서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다음은 각 자선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다.

먼저 아름다운가게는 물품을 기부받아 재판매하는 단체로, 판매된 수익을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또 판매가 어려운 물품은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통해 받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사이클링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를 운영하여 옷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의 자원 재순환과 환경보호,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기증받은 물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판매 수익을 장애 직원의 급여로 지급한다. 또 판매를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가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기업의 재고상품과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이를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전달한다. 또 판매 수익은 나눔가게와 바자회를 통해 국내외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싱글맘과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내외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옷캔은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헌 옷을

기부받아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업사이클링 지원, 자원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자선단체와는 다르게 의류만을 기부받으며, 재사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의류를 자원화 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부받은 물품이 새롭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조사한 자선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아래는 굿윌스토어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그 답변이다.

〈굿윌스토어〉

Q1.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되는 헌 옷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2024년 기준 약 29,938,192점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전체 기증 물품 중 63%는 의류, 잡화 14%, 문화 14%, 생활 7%, 건강/미용 1%, 그 외 1%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개인 기부자로부터 전달되고, 나머지는 기업 기증이나 캠페인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Q2. 재판매되는 옷을 구매하는 고객 중 소외계층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 정확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각 지점 현장에서는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고객의 구매 비중이 체감상 30% 내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입지와 운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기증된 의류 중 재판매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기증된 의류 중 재판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40~50% 내외입니다. 판매 가능한 상태로 선별된 물품만 매장에 진열되며, 그 외 의류는 다른 경로로 활용되거나 자원 순환 절차를 거칩니다.

Q4. 재판매되지 않은 헌 옷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자원순환 방식으로 연계되며, 소각이나 매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전체 기부 물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3%였으며, 이 중 재판매로 연결되는 비율은 약 40~50%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의류를 재구매

하는 소비자 가운데 소외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관계자의 체감에 의하면 약 30% 내외였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굿윌스토어로 기부된 의류 중 일부가 소외계층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옷캔에 서면의 질의한 주요 내용과 그 답변이다.

〈옷캔〉

Q1.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되는 헌 옷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기업과 개인을 합하여 2024년 기준 약 380톤의 의류를 기부받았습니다.

Q2. 기증된 헌 옷이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업사이클링 지원, 자원화 연구에 쓰인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활용 비율과 그 과정 혹은 성과가 궁금합니다.

-> 현재 대부분의 의류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국내외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생아부터 노년 세대까지 수혜자에게 맞는 의류를 선별하여 준비합니다. 업사이클링은 작년 기준 약 400벌의 의류만 활용되었습니다.

자원화는 옷캔의 장기적인 목표로, R&D와 플랜트 등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현재 해외 사례 등을 정보 수집하고 있는 단계지만, 차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부받은 의류를 자원화하여 환경을 지키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3. 기증된 헌 옷 중,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되는 옷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사용이 어려운 의류와 해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의류를 제외하고, 90% 이상 소외 계층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Q4.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헌 옷들의 비중과 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사용이 불가능한 약 1% 내외의 옷들은 폐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부 목적의 의류들이기에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Q5.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 3자가 착용할 수 있는 옷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옷캔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의류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헌 옷이 소외계층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또 옷캔이 시행하는 사업 중 업사이클링에 활용된 의류는 작년 기준 약 400벌이었다. 자원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답변받지 못했으나, 현재 연구와 기업 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재사용이 어려운 약 1%의 옷들이 폐기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의류 기부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은 기증받은 헌 옷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거나, 재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단체는 업사이클링과 자원화 연구를 통해 의류 재사용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활용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가 기부한 헌 옷들은 최대 90%까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고, 옷캔의 경우 약 400벌 정도가 업사이클링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1] 팩트체크 결과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옷들은 대부분 재사용(기부)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의류 수거함의 옷들은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있을까?

앞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헌 옷의 재사용 및 재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류 수거함에 투입된 폐의류가 실제로 대중의 인식처럼 재사용(기부), 재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는 의류 수거함이 개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며, 모아진 옷을 재활용품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헌 옷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재사용, 재활용되는 것이 아닌 것일까? 또 의류 수거함 속 헌 옷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헌 옷의 이동 경로와 재사용 및 재활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의 A 업체,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B 업체와의 유선 인터뷰를 시도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A 업체 인터뷰 내용〉

Q1. 의류 수거함의 옷들이 사회 취약 계층에게 기부가 되고 있을까요?

-> 다 외국으로 수출 보내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할 옷은 구제 헌 옷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사가고요. 다 못 쓰는 것들은 거의 해외로 수출 보내고 있어요.

Q2. 그러면 기부되는 옷들은 아예 없고, 다 구제 시장으로 보내거나 수출한다는 말씀인 거죠?

-> 기부는 다른 업체들이 할 테죠, 또.

Q3. 그러면 모인 옷들이 결과적으로 수출 처리된다는 말씀일까요?

-> 네.

Q4.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인 거죠?

-> 그런 것도 있고요. 그전 시에 인허가를 다 내고 운영하는 거라 지역마다 달라요.

Q5. 그러면 시에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 그냥 길거리에서는 마음대로 운영 못 해요. 시마다 다 달라요.

서산시의 A 업체에게 의류 수거함의 옷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물었을 때, 수거한 옷을 '다 외국으로 수출 보낸다'라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할 옷은 구제 헌 옷 가게 업자가 구매해 간다고 하였다. 또한 A 업체의 경우, 기부는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업체 인터뷰 내용〉

Q1. 의류 수거함의 옷들이 사회취약계층에 기부가 되고 있을까요?

-> 일부 되고, 대부분은 수출해요.

Q2. 기부가 되고 있다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 10% 정도입니다.

Q3. 의류 수거함 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Q4. 그러면 의류 수거함으로 모인 옷들이 일차적으로는 어디로 이동되나요?

-> 1차 수집소로 가요.

※ 1차 수집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물었으나, 전화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Q5. 그러면 결과적으로 90%가 수출된다는 말씀일까요?

-> 30%는 쓰레기로 파기 돼요.

송파구의 B 업체에서는 수거한 옷 대부분을 수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심지어 기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전체 중 10% 정도이며, 30%가 쓰레기로 파기, 나머지 60%가 모두 수출된다고 밝혔다.

의류 수거함 업체 인터뷰 결과, 수거된 옷들이 적게는 60%, 많게는 100%나 수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방송되었던 KBS 환경스페셜의 자료에 따르면,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된 헌 옷 중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모두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 대다수의 의류가 국내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되지 않은 채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로 수출되는 옷들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여부는 후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현재 지자체가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의 처리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따라서 팀 구성원의 생활권과 그 근처인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광진구청 청소과,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의 담당 부서에 유선 인터뷰를 요청하여 관련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Q. 서산시청 내의 의류 수거함을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 (시 내에) 업체가 총 3곳이 있습니다. 업체가 의류 수거함을 (시에) 등록하고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한다기 보다는, 저희는 설치·신고 등록을 받고 신고 등록을 내주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상 서산시가 의류 수거함 전체를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예요.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Q. 남양주 내의 의류 수거함을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조례상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진구청 청소과〉

Q1. 광진구 내의 의류 수거함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저희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구역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 2개의 업체가 총 550개의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어요. 민간 개인 업체이고, 제안서 공개 모집을 통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업체입니다.

Q2. 의류 수거함의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업체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옷들을 선별한 후 수출하거나 판매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Q3. 의류 수거함과 관련해 구청에서 따로 조사나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 네.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공개 모집으로 개인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죠.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Q. 강남구의 의류 수거함들은 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말씀드리기에 애매한데, 8월 10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되, 운영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제작하여 운영권을 협약 업체가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청의 경우, 의류 수거함은 업체가 등록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시청은 신고·등록 절차만 담당할 뿐 직접적인 관리나 운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또한 조례상 의류 수거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진구청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의류 수거함 담당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광진구 내 의류 수거함은 두 곳의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련 조사나 통계는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은 8월 10일부터 직접 구청에서 의류 수거함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으나, 운영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인터뷰에 응한 네 곳의 지자체 모두 직접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 의류 수거함의 제작과 설치만 구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의류 수거함의 옷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제대로 된 통계를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국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활용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였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폐의류가 수익성이 높은 수출의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터뷰와 KBS 자료를 참고하며, 의류 수거함의 현 옷들이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규모로 현 옷을 수출하고 있는 것일까? 무역 자료를 집계하는 OEC(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은 4억 1,700만 달러의 규모로 현 옷을 수출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말레이시아(1억 2,600만 달러), 필리핀(8,310만 달러), 태국(3,810만 달러), 인도(3,690만 달러), 칠레(3,340만 달러) 순이었다.

연도별 중고 의류 수출량은 관세청 수출입 통계(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HS코드 63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2024년 한 해 수출된 중고의류의 양'은 약 30만 톤에 달했다. 또한 2025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수출량(2022년 BACI 국제 무역 통계)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수출량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는 의류 자원 순환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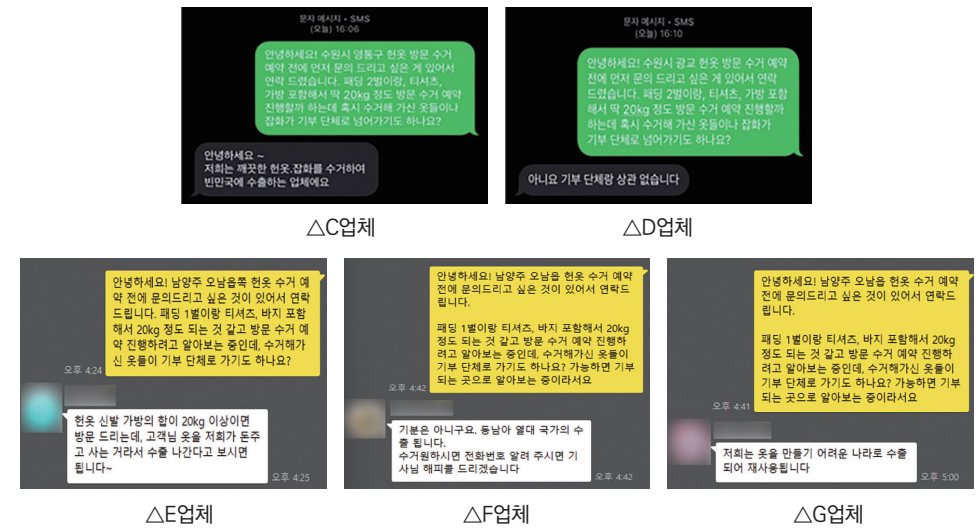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옷들은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의 중고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렇게 해외 중고 시장에 수출된 옷들이 모두 판매되어 재사용 및 재활용된다면 문제없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팔리지 못한 옷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2025년 한겨레 기사에는 타이와 캄보디아 국경의 '롱끌랴 시장'과, 하루 1톤이 넘는 옷과 신발이 버려지는 '아란야쁘라렛 매립지'의 현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곳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세탁된 신발이나 한국어 문구가 인쇄된 가방 등도 현지에서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또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허가된 쓰레기 매립지에 보내지지 않고 불법 소각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된 옷들은 국내 기부를 통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수출되어 쓰레기로 떠돌게 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 [3-2] 팩트체크 결과

의류수거함의 옷들은 국내 재사용 및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3-3]: 사설 헌 옷 수거 업체의 옷들은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있을까?

의류 수거함 외에 더 이상 입지 않는 헌 옷을 처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사설 헌 옷 수거 업체를 들 수 있다. 사설 헌 옷 수거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거를 요청하고 현관 앞에 헌 옷을 비치하면, 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예시로 헌옷 훈남, 헌옷 청년, 리클 등의 업체가 있으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할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특정 무게 이상이 될 때만 수거를 진행하고 수거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살펴보다 보면, 사설 헌 옷 수거 업체가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헌 옷을 수거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따라서 수거한 헌 옷들의 행방에 관해 묻고자, 여러 사설 헌 옷 수거 업체들에게 전화와 메일로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이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결과 5개의 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5개 업체의 인터뷰에서 모두 해외 수출이라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헌 옷 수거 업체들은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헌 옷을 수거해간 뒤,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폐의류가 국내 기부단체나 자선단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업체가 '사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윤 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헌 옷 수거 업체 중 '리클'은 결을 달리한다. 리클은 헌 옷을 방문 수거하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리클 스토어'에서 재판매하는 업체다. 더나은미래 기사에 따르면, 리클 양수빈 대표는 "떨떨한 옷이라도 의류 수거함에 들어가면 대부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폐기된다"라며 헌 옷을 재유통시키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자 방문 수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언급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헌 옷에 대한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만, 수거된 헌 옷의 처리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리클은 수출이 아닌 재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폐의류 재사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리클에서 수거한 헌 옷들은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창업 이후 현재까지 100% 재판매되었다.

또, 데일리경제 기사에 따르면 리클과 MOU를 체결한 업체인 '웹스'는 의류 생산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섬유를 이용하여 자재를 생산한다. 웹스의 우현오 대표는 "디자인 소재로서 섬유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라며 "리클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순환 구조를 구체화하고, 친환경 디자인의 대중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스타트업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웹스는 파타고니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섬유폐기물 업사이클링 벽돌'을 납품한 적도 있는데, 이는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섬유 분말화를 거쳐 콘크리트 원재료와 혼합하여 제작된 것이다.

∴ [3-3] 팩트체크 결과

리클을 제외한 사실 헌 옷 수거 업체의 옷들은 국내 재사용 및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4] 문제점과 원인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지금까지 의류 수거함과 사실 헌 옷 수거 업체, 기부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버린 옷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초기

인식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의류가 기부나 재사용, 재활용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팩트체크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의류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사실 헌 옷 수거 업체 또한 이윤을 위해 동남아 등지로 의류를 수출하고 있었다. 반면, 기부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통해 기증된 헌 옷은 대부분 기부를 통한 재사용과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국내에서 버려지는 옷의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스웨덴 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EU에서 2035년까지 섬유 간 재활용률을 10%로 확대할 경우 연간 평균 약 4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폐의류와 폐섬유의 재활용이 국내외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섬유 간 재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팀은 버려진 헌 옷의 재활용이 어려운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폐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혼방이라 재활용이 어렵다

폐의류의 재활용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의 영상에 따르면, 재사용은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고 의류의 기부나 재판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재활용은 물품을 원료로써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파쇄나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다룰 '재활용'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폐의류가 재활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의류 폐기물 관련 연구(길나연, 2021)의 저자는 의류 폐기물이 대부분 섬유 혼방이며, 단추나 지퍼와 같은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한 뒤 물질 대 물질로 재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BBC 기사에서도 실제로 생산되는 의류 중 1% 미만이 물질 대 물질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섬유패션산업을 다루는 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섬유 산업은 '원료-생산-사용-폐기'의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의류 제품 대부분이 폴리에스터와 면, 스판덱스 등 여러 소재가 혼합된 형태로 제작되며, 다양한 염료와 가공제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선별 및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조정보 박사 또한 YTN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류 폐기물은 소재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달라 이를 각각 분리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의류에 사용된 염료는 한 번 가공하면 제거가 쉽지 않아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한국경제 기사에서도 재활용이 까다로운 품목으로 의류 폐기물이 꼽혔다. 역시 그 이유로 혼방 소재와 염료가 언급되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이 특정 소재에 한정되거나 재활용 후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WIRED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합성 섬유와 실타를 ‘블렌더에 5가지 맛의 아이스크림과 마시멜로, 스프링클, 심지어 숟가락까지 섞여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 더욱이 유럽환경청(E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가 의류의 약 60%, 가정용 섬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입는 옷 대부분이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류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다시 원료로 되돌려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2] 기술 등이 존재함에도 비경제적이다

그렇다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에서 폴리에스터나 염료, 가공제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틴뉴스 기사에서는 혼방 섬유 소재를 분리하는 기술과 함께, 염료 및 가공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해중합 공정으로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염료 및 가공제 제거 기술로는 네덜란드 Loniqa의 액체 CO₂를 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의 염료를 분리하는 공정이 있으며, 미국 Circ는 열수 공정을 통해 혼방 섬유 소재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스웨덴의 Renewcell은 ‘Circulose’ 공정을 통한 해중합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앞서 YTN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조정보 박사는 의류 폐기물로부터 폴리에스터를 선별하고 분리하여 합성 이전의 원료로 되돌릴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에 분리가 어려웠던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물론, 최초 합성 시의 원료 품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같은 인터뷰에서 앵커가 기존 기술의 상용화에 관해 묻자, 조정보 박사는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2023년)을 기준

으로, ‘지금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 박사는 현재까지 의류 선별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의류를 분류하였기에, 많은 노동력이 요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재 구조를 분석하는 초분광학 장비는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 역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의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 중 상용화가 일반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 언급한 WIRED 기사에서 순환 혁신 플랫폼 Fashion for Good의 Innovation Platform Director인 Kathleen Rademan은, 폴리에스터 재활용 문제가 적어도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에스터로 최종 전환되는 원료 화학 물질의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 폴리에스터 재활용의 문제는 혁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폐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용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오정미 교수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Q1. 흔히 의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과거, 합성 섬유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의류를 주로 면, 모, 마 등 한 가지 섬유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일 섬유로 만든 옷은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작업이 필요 없고, 재생 섬유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죠. 그러나 현재는 패션과 기능성 요구가 다양해지고, 각 섬유가 가진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섬유를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합 섬유는 착용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키지만, 재활용 과정에서는 섬유 분리가 어려워져 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과잡처럼 지퍼가 달리기도 하고, 부위별로 소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섬유가 섞이면 각각의 섬유를 분리해 낼 방법이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적, 기계적 방법이 너무 어렵고 또 비쌌습니다. 어쩌면 새로 옷을 만드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 이용을 하는 것보다 그냥 섬유를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죠. 또 그렇게 만든 옷은 비용도 올라서 고객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어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기술이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Q2. 해외의 염료 및 가공제 제거 기술과 혼방 섬유 분리 기술, 그리고 국내 조정모 박사팀의 폴리에스터 선별 기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인가요?

-> 비용 문제가 제일 큼니다. 기술 개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기술 가격도 낮아지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제품 가격 등이) 너무 비쌉니다. 그냥 의류를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싸죠. 소비자도 저렴한 것을 좋아하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빠른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 당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저렴한 의류'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와 오정미 교수와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합성 섬유에서 폴리에스터나 가공제 등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의류 재활용 기술은 아직까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새 옷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고, 설령 도입하더라도 저렴한 의류를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와 맞지 않아 시장성이 제한적이다. 결국 재활용 기술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성인 셈이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이나 촉매 등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정미 교수는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한계 외에도, 공정을 통해 생산된 '재활용 옷'의 위생성과 청결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현 옷, 즉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일은 합성 섬유 특성상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큰 관건으로 여겨진다. 또 공정 단계에서의 환경 및 인체 안전성, 소비자 인식 개선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4-3]: 폐의류 통계의 허점과 관리 체계의 한계

또한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폐의류 관련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폐의류 재활용 세부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2023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된 폐의류는 연간 11만 938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폐의류가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라는 처리 방법으로 모두 100% 재활용되고 있다. 이에 수출되는 폐의류도 재활용 통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져,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문의를 해보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선 문의 내용〉

Q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분류하고 있는 폐의류는 어디에서 어떻게 집계된 건가요? 헌옷수거함, 사설 업체, 개인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 의류들까지 다양할 텐데, 여기 통계에서 말하는 폐의류는 어디에서 집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코시스에 자료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공표하는 통계는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자 폐기물을 별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의류고, 사업장 폐기물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의류량을 저희가 집계한 양이에요. 각각 따로 공표되어 있어요.

Q2. 생활 폐기물의 폐의류는 수거함에서 수거한 의류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 지자체에서 수거한 의류의 합이에요.

※ 의류 수거함 업체 및 그 외 업장에서 수거한 의류의 양을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보고된 양의 합계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추정됨

Q3. 저희가 조사 해봤을 때, 헌옷수거함에서 수거된 옷들이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봤어요. 폐기물 처리 현황에 집계되어 있는 '재활용 비율'에 해외로 수출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요?

-> 아니요. 이거는 재활용 시설로 들어간 양이에요. 수출 통계는 따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Q4. 따로 적혀 있는 곳이 있나요?

-> 네, 그런데 수출 통계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수출입은 생활폐기물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건 별도로 통계 관리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전화 문의를 해 본 결과, 수출되는 폐의류는 재활용 통계로 집계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통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폐의류 수출 통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추가 전화 문의를 진행하였고, 찾고자 하는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 통계(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HS코드 6309)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통계에는 폐의류 재활용 업체를 통해 수거, 선별된 후 수출되는 중고의류에 관한 집계량(단위: t)이 나타나 있었다. 수출되는 중고의류의 양은 매년 30만 톤을 웃돌지만,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을 통해 확인되는 폐의류의 분리배출량은 연간 10만 톤 정도이므로, 수거량과 수출량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다. 그렇기에 두 번의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환경부 재활용 통계에는 중고 의류의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는 중고 의류의 수출은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팀의 추측에 의하면 의류 수거함과 사설 수거 업체 등을 통해 수출되는 헌 옷은 공식적으로 ‘폐의류’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를 수집하는 체계 자체에 허점이나 미흡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3-2]의 서산시청, 남양주시청, 광진구청 등 의류 수거함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관리 체계가 소홀하다는 실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환경부 측에서도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된 폐의류 통계의 출처를 ‘지자체가 수거한 의류의 합’이라고 밝혔지만, 의류 수거함의 의류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또한 모순적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자체의 통계’라 함은 몇몇 의류 수거함 업체로부터 보고되는 수거량의 합계일 것이고, 보고만으로 집계된 수거량은 실제 수거량과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자체는 의류 수거함을 길거리에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도 존재하기에 통계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 6월에 올라온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도 지자체에서 폐의류를 집계하는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측면이 확인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강원도에서 ‘폐의류 통계’를 제공한 지자체는 도내에서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폐의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나머지 11개 시·군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재했을 때는 ‘수거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의류 수거함의 옷을 직접 수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의 허술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폐의류가 정확히 얼마나 수거되는지, 수거된 옷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버려진 헌 옷은 결코 재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폐의류 분류체계 연구(오정미, 2023)에 따르면 의류 수거함을 통해 배출된 생활계 폐의류는 수탁업체에 의해서 수거되고, 분류 과정을 거쳐서 중고의류로 국내 시장에 재판매되거나, 수출 등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추가로, 중고의류로 유통되는 폐의류가 ‘폐기물 종류 세부 분류’에 의해 폐의류, 폐섬유, 폐섬유류로 수거되어 집계되고는 있으나,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와 ‘폐섬유’의 분류 코드(91-08-00)가 같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분류 시스템상으로는 폐의류와 폐섬유의 구분이 모호하고, 옷 대 옷으로 재사용되는 양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한 의견을 오정미 교수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Q1. 통계상의 한계와 분류 체계의 모호함이 실제로 폐의류가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으로 분류되어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재활용이 잘 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100%라고 하지만, 사업장배출계는 ‘섬유류’로 폐의류를 묶어 버리니, 데이터가 모호한 탓에 재활용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일단은 데이터의 모호함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활용 현황 자체를 정확히 모르기에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2. 국내 의류 폐기물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의 통계 보고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이러한 통계와 분류 체계의 문제점이 폐의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거한 의류를 90% 이상 수출한다는데, 수출하는 양과 폐의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발생량을 단순 계산해도 중고 수출량보다 훨씬 적으니... 데이터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섬유가 뭔지, 그 섬유에서 폴리와 면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게(kg) 단위로만 통계를 내니까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수출 업체도 내수시장 유통, 수출, 그 외는 폐기한다는데 폐기하는 의류를 매립하는지, 소각하는지, 재생 이용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 통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폐의류 통계 수집 체계도 허술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확인이 가능한 중고 의류 수출 통계에는 생활계 폐의류와 폐섬유, 그 외의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각각의 수출량을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오정미 교수의 의견처럼 기존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 업체 통계 보고를 의무화하여, 업체에서 수거하는 폐의류의 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한 지자체별 폐의류 수거량의 합으로 통계를 도출하여 그 안에서의 수출량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통계 체계가 지속된다면, 헌 옷의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중앙 기관, 지자체는 민간 업체에 의한 폐의류 수출 실태를 외면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통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폐의류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작성하기

초기 20대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털 사이트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중들은 의류 수거함·사설 방문 수거 업체·자선단체의 이용이 곧 기부나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소송팀은 이러한 인식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고, '의류 수거함, 사설 방문 수거 업체,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이용이 재사용(기부)이나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 옷을 필요로 하는 '헌 옷 수혜 기관',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의류 수거함, 사설 방문 수거 업체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다양한 언론 보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류 수거함과 사설 방문 수거 업체에 모인 옷들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 통계와 달리, 실제 국내 폐의류 재활용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 통계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기부 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헌 옷은 비교적 재사용과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단체는 의류를 직접 소외계층에 전달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팩트체크 과정에서 드러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류의 60~70% 이상이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입는 옷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이를 다시 원료로 되돌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공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개발된 재활용 기술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합성 섬유 의류에서 폴리에스터나 염료, 가공제를 분리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만, 이를 상용화하기에는 기술의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새 옷을 만드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더욱 경제적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활용 기술의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류 폐기물 재활용 확대의 관건이다.

셋째, 폐의류 통계상의 허점과 지자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폐의류는 100% 재활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출 처리되는 폐의류는 별도 통계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재활용 실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확한 수거량과 수출량, 그리고 처리 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생활계 폐의류 발생량의 통계가 ‘지자체가 수거한 의류의 합’이라고 하였으나, 의류 수거함의 옷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지 않기에, 이 부분에도 모순이 존재했다. 지자체의 통계는 민간 업체의 보고량으로만 집계되므로 실제 수거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일부 업체의 수거량은 보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해결 방안

최근의 패션 산업은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따라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덕분에 소비자는 최신 유행에 맞는 의류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생산과 소비 방식은 당연하게도 막대한 양의 폐의류 문제를 초래했다. 게다가 폐의류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 오정미 교수는 폐의류 기술의 경제성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말처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의류 과잉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의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폐의류 재활용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관 후 폐기되는 재고 의류에 대한 규제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류 생산 개입은 기업이 옷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폐기 단계까지 고려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기업의 의류 과잉 생산을 제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 옷의 상당수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의 폐의류 재활용 통계는 수출이 재활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현시점에서는 헌 옷의 구체적인 행방 및 재활용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정부 통계 안에 ‘수출’ 항목을 따로 만들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분류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류 재활용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활용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어패럴뉴스 기사에 따르면, 폐의류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기술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휠라코리아는 ‘리턴 투 케어’라는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받은 바람막이 의류 등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하여 자립준비 청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브랜드는 자원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낮은 단가와 빠른 회전율을 우선시하는 패스트패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저렴한 의류를 대량 생산한 후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팀이 인터뷰한 부산대학교 오정미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류업체의 상당 비중이 중소 규모 또는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보고를 수행할 체계와 자원,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발간된 보고서의 경우에도 그 투명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 구매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실제로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2%가 옷을 살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즉, 대다수의 의류 소비자는 환경이나 윤리적 가치보다 경제적 요소가 여전히 소비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한다는 의미이다. 소비자 역시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공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옷의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입지 못하게 된 옷은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산대학교 오정미 교수에 따르면 걸으로 보이는 패션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매번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이 의류 폐기물 재활용에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문제는 어느 한 쪽만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은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하며,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할 때, 비로소 의류 폐기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 "소름! 당신이 버린 옷의 진짜 종착지" *
*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경 이야기] *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우리가 무심코 버린 헌 옷,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제 의류 수거함에 넣었던 내 과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을까?

이처럼 <“소름! 당신이 버린 옷의 진짜 종착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경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헌 옷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의류 수거함부터 기부단체, 사설 수거 업체까지 그동안 우리가 버려왔던 수많은 옷의 출발점과 종착지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추적한다!

헌 옷의 여정을 쫓으며, 폐의류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막는 여러 문제점과 통계상의 미흡함,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까지 짚어본다.

이제 다양한 기사와 논문,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 우리가 버린 옷 속 감춰져 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 상세설명

우리의 영상은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패러디하여 제작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화자인 ‘이야기꾼’과 이야기를 들으며 리액션 및 질문을 하는 ‘듣는 친구’ 2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여 질문-대답을 이어간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 인물인 ‘소숨’은 과잠을 의류수거함에 잘못 버린 23살 대학생이다. ‘소숨’이 잘못 버린 과잠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헌 옷 재사용 및 재활용 실태가 낱알이 드러나는 전개이다.

EP.1 이야기꾼이 말해주는 소숨의 이야기

‘소숨’이 의류수거함에 실수로 넣은 과 단체복(과잠)이 해외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듣는 친구’가 의류수거함에 넣은 옷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이야기꾼’은 수거함 속 헌 옷이 해외로 간다고 답한다.

EP.2 의류수거함 속 헌 옷의 진실

‘이야기꾼’은 20대 70명도 ‘듣는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담긴 인식 조사 설문 자료를 보여준다. 이어서 의류수거함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의류

수거함의 옷들은 수출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폐의류 재활용률이 환경부 통계에서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자체 인터뷰 자료화면을 통해 의류수거함은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EP.3 비영리단체에 넘어가는 헌 옷들은?

‘듣는 친구’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옷에 대한 행방을 묻자, ‘이야기꾼’이 굿윌스토어, 옷캔 이메일 인터뷰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며 대부분 재사용 및 재활용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EP.4 사설 방문 수거 업체는 믿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야기꾼’이 ‘리클’은 100% 재판매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며 재사용됨을 알려준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출하고 있기에 사설 방문 수거 업체라고 해서 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EP.5 폐의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듣는 친구’가 폐의류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관해 묻는다. 이야기꾼이 대다수의 의류가 합성 소재인 점, 소재 분리 기술의 비경제성, 정부의 통계 관리 미흡의 3가지 이유를 들어 대답한다. 이후 정부, 기업,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역설하며 이야기꾼과 듣는 친구의 대화는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폐의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VCR로 영상이 끝난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소숨팀은 체커톤 대회 출품작 “소름! 당신이 버린 옷의 진짜 종착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경 이야기」(이하 꼬꼬환)의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교내 활동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였다. 총 네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대학 구성원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과정과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국문학과 전공 강의 ‘한국어와 대중매체’ 상영 및 반응 조사



소속팀이 소속된 국어국문학과에는 약 5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한국어와 대중매체’라는 전공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해당 과목은 언어와 매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광고·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속 언어적 특성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소속팀은 해당 강의 담당 교수의 허락을 얻어, 9월 15일 수업 시간에 ‘꼬꼬환’ 영상을 상영하였다. 영상 시청 후에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감상과 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총 32명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영상을 본 학우들의 소감 중 일부이다.

살면서 버려지는 옷들이 어디로 가는 지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데, 영상을 보고 새로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 1개	앞으로 옷을 버릴 때 영상 내용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헌옷을 버릴 때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1개	헌옷수거함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옷을 버린다고 끝이 아니라 그 옷들이 어딘가에서 소각되고, 묻혀 결국 안 좋은 형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답변 1개
막연하게 버리던 옷들이 들고 돌아 환경 유해물질이 되어 나랑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 이외에도 모르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다	답변 1개	옷을 가장 쉽게 버리는 경로가 의류수거함이고, 당연히 누군가에게 기부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사용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충격이었다. 앞으로는 옷을 버릴 때 비영리단체 이용을 알아보게 될 것 같다.	답변 1개	헌옷수거함이 집 앞에 있어도 다 업체가 달라보여서 어떤 원리일까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궁금증 해소되어서 좋았습니다!	답변 1개
영상미가 너무 좋고 수출의 과정을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답변 1개	실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상 퀄리티가 좋아서 잘 봤습니다! 대학생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과잡 이야기로 영상이 시작돼서 몰입이 잘 됐습니다. 이제 옷을 살 때 환경을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보겠습니다.	답변 1개	옷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류수거함에 단순히 옷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해준 영상이다. 앞으로는 옷 재활용이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쏠려야겠다.	답변 1개
과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와 다르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고경관님을 할 수 있는 경험이라서 좋았습니다	답변 1개				

영상에 대한 학우들의 응답을 정리해보면, 다수의 학생들이 의류수거함 속 의류가 재사용 및 재활용 되는 줄 알았으나, 영상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 영상 시청을 계기로 의류 소비와 폐기 과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는 의류 폐기 과정과 개인의 소비 습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팩트체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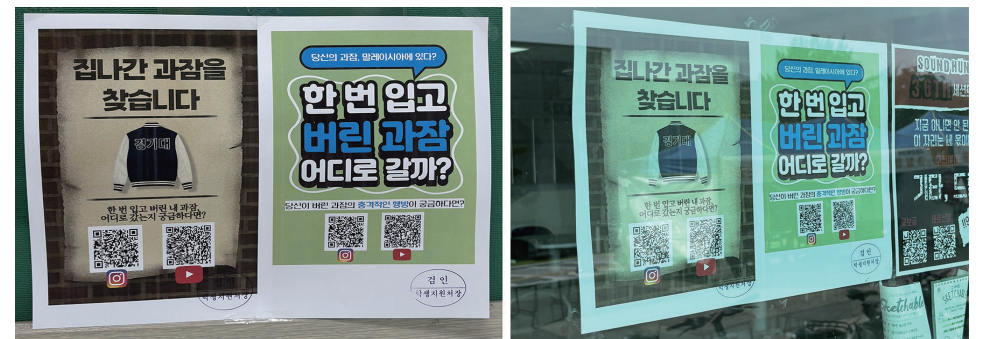
영상 상영 전, 다수의 학생들은 의류수거함 속 헌 옷이 재사용 및 재활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고서 속 인식 조사에서, 의류수거함 이용자의 26%가 옷이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다고 답한 결과와 일치하며, 소셜 데이터 분석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소속팀은 이러한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체계적인 팩트체크를 수행하였고, 해당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영상에 반영하였다. 영상 상영 이후 학우들은 초기 인식과 달리 옷이 재사용이나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의류 소비와 폐기 과정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팀의 팩트체크가 일반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유의미한 홍보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2. 대학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 및 행동 변화

소속팀의 체크톤 주제는 처음 대학 내 단체복 등 학내 의류폐기물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후 국내 의류폐기물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은 교내에서 상영되었으며, 학생들은 의류폐기물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대학 생활 속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팩트체크가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행동 의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홍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내 구성원의 환경 인식과 실천을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교내 강의동 및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부착



다음으로 소속팀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 강의동과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포스터에는 ‘꼬꼬환’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의 QR코드와, 홍보를 위해 개설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체커톤 소속팀’ 인스타그램 계정의 QR코드가 함께 삽입되었다. 또한 체커톤 주제 선정의 시작이며,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잠’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여 포스터의 주된 디자인을 구성했다.

포스터의 각 버전은 6부씩 인쇄되었으며, 교내 학생지원처의 허가를 받아 강의동,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실 등에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QR코드를 활용해 ‘꼬꼬환’ 유튜브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인스타그램 계정 홍보도 병행하였다. 아래는 교내 시설물에 부착된 포스터의 일부 사진이다.

포스터를 통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면, 유튜브 링크(<https://youtu.be/2G0sXuZnRUQ>)의 조회수는 139회, 댓글은 총 15개가 기록되었다. 체커톤 본선 마감 전으로 전체 영상을 공개할 수 없었으며, 링크가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폐쇄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정한 홍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일상 공간과 학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영상의 접근성을 높이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연결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홍보

소속팀은 팀과 영상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홍보 포스터와 유사한 디자인을 활용한 웹 게시물을 제작하여 구독자 및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꼬꼬환’ 영상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효과음 처리 등 다양한 효과를 활용하고, ‘과잠이 XX에 있었어’와 같은 표현으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또한 전체 영상은 체커톤 마감일인 21일에 공개됨을 안내하여,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체커톤 소속팀

@where_isvarsity · 구독자 10명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제7회 체커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소속팀입니다! ...더보기

채널 맞춤설정

동영상 관리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체커톤 소속팀’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꼬꼬환’의 전체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다만 홍보가 진행되는 기간은 체커톤 대회가 마감되지 않은 때였다. 따라서 제출작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링크를 앞선 포스터

와 교내 SNS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댓글과 좋아요로 그 반응을 수집하고자 했다. SNS 홍보 활동의 결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120명을 확보하였으며, 릴스 영상은 3087회의 조회수와 33개의 ‘좋아요’를 기록하였다. 유튜브 계정의 경우 구독자 10명, 영상 조회수 139회, ‘좋아요’ 18개를 달성하였다. 특히 유튜브 영상은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꼬꼬환’ 영상은 ‘헌 옷이 기부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실제 행동 변화를 고려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기 인식은 보고서 초반에 제시된 인식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소속팀의 팩트체크가 유의미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으며, 홍보 활동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소감

전수현

체커톤 대회를 준비하며 평소 의문을 가졌던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속 '과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관련된 기사와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 인물과 단체를 직접 인터뷰하며 사실을 교차검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 옷의 행방이나 정부 통계의 한계 같은 문제를 직접 발견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또 시사교양 채널을 패러디해 저희 주제와 어울리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전달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본선 출품작이 실제 수업 시간에 상영되고, 학우들의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시작된 고민이 다시 대학 구성원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체커톤 대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팩트체크가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팩트체크를 꾸준히 실천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문서현

몇 번 입고 버리는 과잠, 그리고 헌 옷이 실제로 재사용 및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이번 체커톤 활동은, 의류 수거함에서 수거된 옷 상당수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인터뷰와 자료 조사로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선 준비 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저작권 관리였습니다. 통계 자료와 영상·이미지를 활용할 때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필수로 거쳐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출처와 저작권 준수가 곧 팩트체크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미디어 결과물의 기획·촬영·편집까지 직접 진행하며, 팩트체크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작업임을 배웠습니다. 짧은 장면 하나, 자막 한 줄이 메시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정보 전달의 책임감을 더 실감하게 했습니다. 폐의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를 탐구하면서 개인적인 환경 의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익숙하다고 믿었던 정보일수록 더 깊이 검증하고,

사회적 인식을 흔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우

고등학생 시절, 과잠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상상을 하며 대학 생활을 기대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처럼 과잠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대표적인 로망이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과잠이 단순한 로망이자 추억에 머물렀다면, 이번 체커톤에 참여하면서는 한두 번 입고 버려지는 과잠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커톤 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팩트체크를 위해 주된 방법으로 담당자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인터뷰에 거절을 당하거나 자료 활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막막함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 '이 자료를 사용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는 등 팩트체크의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여러 차례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번 체커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배움과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음을 느낍니다.

또, 본선에 진출한 후에는 저희 팀이 탐구한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대본 작성, 출연자 섭외, 편집, 홍보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제작의 여러 과정 중에서 제가 특히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